

## 유사학회끼리 더 늦기전에 통합을

현 동 석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

작금에 이르러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40여년의 갖은 고난과 역경의 역사속에서도 꾸준히 굳건한 뿌리를 내려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인 대한전기학회를 회상해 볼때 이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인고와 심열이 담겨져 있는지 형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간의 그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만족하여 안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은 우리와 후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무언인가 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데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운명적인 처지에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내일도 먼 훗날에도 분명히 대한전기학회는 개혁속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혁속의 발전과 더불어 고질적인 저해요소 또한 상존하는 법이기에 우리 대한전기학회도 예외 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빨리 이를 발견하여 제거하고 치유한다면 한층 명실상부한 학회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글을 빌어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바로 이산된 학회가 하나의 학회다운 학회로 본연의 위상으로 기필코 환원하여 정립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필경 학회란 명예욕에 불타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출세의 장도 아니고, 파렴치한 정치꾼들의 투쟁 내지는 흥정의 장도 아닐진데..., 오로지 학문을 사랑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학문다운 학문의 발표의 장이요, 토론의 장이며 회원들간의 관심사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 상부상조하며 계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개선 증진시켜 작게는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고 크게는 국가 내지는 세계 발전에 기여함에 있을진데 어찌 우리학회는 날이 갈수록 이산화 되어 가고 또한 되어져 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회 규모의 유사 학회가 난립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목청만 돋구고 있으니 한심스럽게 그지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탓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유사 학회는 서로간의 허구적인 명목에 매여 회원들의 진정한 바램을 저버리지 말기를 기원하면서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